

양 앵 두

농업연구사 김 석 만

1. 일반현황

양앵두나무는 유럽 중남부와 소아시아가 원산지이며, 이 지역으로부터 유럽 전역과 북아메리카 등으로 전파되어 현재는 위도 35~55° 사이의 온대지방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다.

양앵두나무는 앵두나무아과(Drupaceae) 벚나무속(Prunus) 앵두나무아속에 속하는 낙엽과수로 영명은 Cherry라하며, 재래앵두와 구분하기 위해 양앵두라 하면서 오늘날까지 불리워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양앵두 재배는 권업모범장(1908년)에서 시범재배된 것이 최초이나 일반인 재배는 1913년도에 인천, 부산, 원산, 진남포항을 통하여 일본에서 들여온 묘목을 일본인들이 재배하였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제주에서의 양앵두 재배는 1999년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시설 80평, 노지 150평에 묘목을 심어 시험 재배한 것이 시초가 되었으며, 그 이후 최근까지 일부 농가에서 재배가 되어오다 지금은 재배면적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주에서는 경제적으로 재배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재배환경

가. 기상조건

새로운 과수원을 개원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겨울철 극기온과 개화기 늦서리 피해이다. 따라서 겨울철이 지나치게 추운 지방이나 상습적으로 늦서리가 많은 지방에서는 재배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기온이 -20℃ 이하로 내려가는 지방에서는 가지가 동해를 받기 쉬우며, 개화시에 -2℃의 저온상태로 4시간 이상 계속되면 꽃이 모두 죽는 경우가 있다.

양앵두의 개화기는 낙엽과수 중에는 빠른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개화

기를 전후하여 저온장해를 받기 쉽다. 개화기의 저온저항성은 품종에 따라 다른데 저온저항성이 비교적 강한 품종은 ‘좌등금’, ‘빙’ 등이고 ‘황옥’, ‘나폴레옹’ 등은 약한 편에 속한다.

서리피해는 꽃봉우리 상태에서도 발생하며, 유과기까지 위험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상 2m 이하에서 피해율이 높다.

또, 개화기인 4월 중·하순에 강우나 저온이 계속되면 꽃가루를 옮겨주는 꽃가루 매개곤충(방화곤충)의 활동이 정지되거나, 약화되어 결실이 불안정하게 된다. 또한 성숙기인 5월 하순~6월 상·중순의 강우는 열매터짐 현상을 발생시켜 상품가치를 떨어뜨리므로 생육기간 중 특히 4월~7월까지의 기간에 강우가 적고 일조량이 많으며, 공기가 건조하고 밤낮의 온도교차가 생리장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큰 곳이 재배에 좋다.

나. 토양조건

양앵두 나무를 심을 땅은 지하수위가 낮고 물빠짐과 통기성이 좋은 사양토이면서 경사가 15도 이내로 그다지 급하지 않은 남서향이 좋다. 지하수위가 높고 토심이 낮은 곳에서는 과실비대나 착색이 불량하고 수지병 발생이 많아 나무가 쉽게 노화된다. 또한 산성 토양에서는 토양 무기영양분의 이용성이 나빠지므로 개원할 때에 석회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해 주어야 한다.

3. 양앵두의 종류 및 품종특성

양앵두는 달고 신맛이 적어 생과용으로 적합한 감과(甘果) 양앵두(Sweet cherry, *Prunus avium* L.)와 신맛이 많아 주로 가공용으로 이용되는 산과(酸果) 양앵두(Sweet cherry, *Cerasus* L.)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감과 양앵두는 온대지역에 잘 적응된 과수로 비가 적고 건조한 기후를 좋아한다. 지나친 건조와 고온에 약하며 내한성은 사과나무보다 약하다. 자가불화합성이 강하며 다른 품종과의 타가불화합성도 강한 편이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양앵두는 모두 감과 체리이다.

산과 체리는 과실이 작고 신맛이 강하여 가공 및 요리용으로 이용된다. 내한성, 내건성 및 내습성이 감과체리보다 강하다. 자가화합성이 강하여 수분수가 필요하지 않다.

가. 품종선택시 고려할 사항

(1) 수분수의 섞어심기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감과 양앵두나무는 자신의 꽃가루만으로는 결실이 되지 않는 자가불화합성이 강할 뿐 아니라 품종이 다르다 하여도 그 품종의 꽃가루로는 결실이 되지 않는 타가불화합성이 강하기 때문에 품종별로 적합한 수분수 품종을 20~30% 비율로 섞어 심어야 한다.

또한 타가화합성인 경우라 하여도 개화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분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분수 품종은 주 품종보다 개화기가 1~2일 빠른 것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2) 숙기

품종의 선택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재배지의 기상조건에 따른 성숙기의 차이, 다른 작물과의 복합경영에 따른 노동력 배분 관계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양앵두는 저장력과 수송성이 약하므로 교통이 불편한 지방이나 소비지가 먼 곳에서는 과육이 무른 연육종(軟肉種)이나 대면적의 재배가 부적당하므로 이런 곳에서는 중만생종의 경육종(硬肉種)을 선택하여 재배한다.

또 7월에 만생종이 성숙하는 지방이라면, 이 무렵에 조생종 복숭아나 자두가 출하되어 경쟁됨으로 불리하다. 특히, 양앵두 수확에는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므로 다른 작물 재배와 노동력 경합이 발생되지 않는 시기에 수확될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나. 품종특 특성

(1) 조생종

○ 일출(日の出, Early Purple Guigne)

육성 내력은 확실치 않으나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재배되어온 품종이며 유목일 때는 발육이 다소 약하나 점차 세력이 강하게 된다. 나무 자람세는 초기에는 직립성이어서 결실량이 어느 정도 많아지지만 과중이 3~4g 정도로 작아 수확량은 많지 않다. 개화기가 빨라 나폴레옹 품종의 수분수 품종으로 이용되고 있다. 단과지 발생은 잘 되며 숙기는 양앵두

품종 중에서는 빠른 5월 하순(이하 숙기는 수원지방 기준임)이다.

과피의 색깔은 처음에는 선홍색을 나타내지만 점차 자흑색이 되어 표면에 작은 반점(과점, 果點)이 생기며 과육은 암자색(暗紫色)으로 유연다즙하고 단맛이 있으나 풍미는 좋지 않다.

이 품종은 극조생 품종이므로 남부지방에서의 조기출하용으로는 적합하나 강우에 의한 열매터짐 현상 발생이 심하여 수확기 강우가 빈번한 지역이나, 중부지방에서는 남부지방에서 출하되는 조생종 품종의 과실과 경쟁되므로 재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얼리리버스(Early Rivers)

육성 내력은 불명확하나 오래전에 영국에서 재배된 품종이다. 숙기는 5월 하순~6월 상순으로 일출보다 3일 정도 늦은 조생종 품종이며 과실은 5~6g 정도로 일출보다 크고, 당도는 13~15° Bx 정도로 높으며 산미가 매우 적어 식미가 우수하다.

과피색은 암적색이며, 과육은 적색으로 착색된다. 강우에 대한 열매터짐 현상발생은 다소 있으나 일출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이 품종에 대한 적합한 수분수 품종은 고사와 반콤팩트(Van Compact)이다.

○ 얼리블랏(Early Burlat)

오래된 프랑스의 재배품종으로 육성내력은 불분명하다. 나무의 세력은 다소 강한 편이나 빙(Bing)보다는 약하다. 과실은 7~8g 정도로 크고, 과피는 암적자색이며, 과육은 중간 정도로 단단하나 빙보다는 연하다. 과실의 당도는 16° Bx 정도이며, 신맛은 매우 적어 품질이 좋은 편이다. 숙기는 일출보다 5일 정도 늦은 6월 상순이다.

이 품종은 나폴레옹, 빙의 수분수로 적합하며, 이 품종을 위한 수분수로 고사, 좌등금 등이 적당하다. 수확 전 강우에 의한 열매터짐 현상은 적은 편이지만 때로는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일출



얼리리버스



얼리블랏

(2) 중생종

○) 자브레(Jabouley, Bigarreau Jabouley)

19세기 초 프랑스 리옹의 자브레씨가 자연교잡 실생으로부터 선발한 품종으로 나무의 세력이 강하여 왕성하게 자라지만 가지의 선단이 늘어지기 쉽다. 결과연령(結果年齡)은 빠르나, 단과지 발생이 적고 장과지에 주로 결실되며, 수량은 적은 편이다. 숙기는 6월 상순으로 중생종으로서 빠른 편이며 과중은 5~6g 정도이고 과피색은 짙은 적색이다. 과육은 열은 적색이며, 육질은 약간 단단하고 단맛과 신맛은 중간 정도로 품질은 중 정도이며 나폴레옹의 수분수로 적당하다.

○ 향하금(香夏錦, Kokanishiki)

일본 후쿠시마현의 佐藤正光씨가 좌등금에 고사를 교배하여 육성한 것으로 일본에 종묘등록된 품종이다. 나무의 세력은 중간 정도이고, 자람세는 직립성이다. 과피색은 연한 황색에 주홍색으로 착색되며, 과육은 유백색으로 착색되지 않는다. 숙기는 좌등금보다 약간 빨라 6월 상순이며 과중은 5~6g 정도로 좌등금보다 다소 작고, 과실 모양은 편원형이다. 당도가 16~17° Bx로 높으나 산미가 다소 많아 식미는 중간 정도이며 좌등금의 수분수로 이용이 가능하다.

○ 좌등금(佐藤錦, Satonishiki)

일본 야마가타현의 佐藤榮助씨가 1912년에 선발 육성한 품종으로 나폴레옹과 황옥의 자연교잡실생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무의 세력은 강하고, 자람세는 직립성이며, 장과지와 단과지 발생이 잘된다. 개화기는 황옥 품종을 닮아 나폴레옹 품종보다 2일 정도 늦으며, 나폴레옹 품종과는 상호친화성은 있으나 좌등금의 개화기가 늦어 나폴레옹의 수분수로 부적당하다.

숙기는 6월 상순경이며 과중은 6~7g 정도로 중간 정도의 크기이고, 수량은 비교적 많아 풍산성이다. 과피는 황색의 바탕에 선홍색이 나타나 착색이 좋으며 반점이 많다. 과육은 유백색으로 착색은 되지 않으며, 핵이 작아 과육 부분이 많다.

육질은 연하나 황옥 품종보다는 다소 단단하여 수송성 및 저장성도 좋은 편이다. 한 나무 내의 과실 간 품질차가 적게 나타나며, 완숙시의 당도는 15~18° Bx 정도로 높은 편이고, 산미가 적어 품질이 매우 좋다.

○ 고사(高砂, Rockport Bigarreau)

1842년에 미국 오하이주에서 옐로우스페니쉬(Yellow Spanish)의 자연교잡실생으로부터 선발된 품종이다.

나무의 세력은 강하고, 나무의 자람세는 직립성이며 풍산성이다. 가지는 매끈하고 적갈색이며 잎은 장난형(長卵形) 또는 타원형(橢圓形)이다.

개화기는 4월 중순경으로 나폴레옹보다 2일 정도 빨라 수분수로 이용 가치가 높다. 꽃은 흰색이며, 1개 꽃눈에서 2~3개의 꽃이 핀다.

숙기는 6월 상·중순경으로 황옥보다 약간 빠르다. 과경(果梗, 열매자루)은 조금 긴 편이며, 과중은 5~6g 정도이다. 과피색은 적황색으로 외관이 아름답고, 과육은 황백색이며 육질은 약간 연하다.

당도는 11~12° Bx 정도이며, 향기와 단맛이 많아 품질은 좋은 편이다.

○ 황옥(黃玉, Governor Wood, Wood)

1842년에 미국 오하이주의 커틀랜드(Kirtland)씨가 실생으로부터 선발한 품종으로 당시 주지사였던 우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품종이다. 나무의 세력은 중간 또는 다소 약한 편이며, 자람세는 유목기에는 발육이 왕성하여 직립성이나 성목이 되어감에 따라 개장성으로 되어 반원형이 된다.

잎 빛깔은 옅고, 단과지 발생이 잘 되며 결실연령에 도달하는 것은 빠르나 나무의 노화도 빨라 경제수령이 짧다. 따라서 전정을 다소 강하게 하여 가지나 잎의 발생을 촉진시키는 것이 좋다. 개화가 늦어 나폴레옹 품종의 수분수로서는 부적당하나 나폴레옹을 이 품종의 수분수로 섞어 심으면 결실이 잘 된다.

숙기는 6월 상·중순경이며, 과중은 5~6g 정도이다. 과실은 황색 바탕색 위에 붉은 줄무늬가 형성되며 과육은 유백색으로 유연다즙하여 단맛이 많고 향기가 있어 품질이 우수하지만 육질이 연하여 수송성은 떨어진다. 성숙기에는 비로 인하여 열매터짐 현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대면적 재배는 부적당하다. 결실을 과다하게 시키면 과실이 작아져 상품가치가 떨어지므로 과다결실이 되지 않도록 결실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 남양(南陽, Nanyo)

1975년 일본 야마가다현농업시험장 오끼다마분장에서 나폴레옹의 자연 교잡실생으로부터 선발 육성된 품종이다.

나무의 세력은 강하며, 자람세는 직립성이나 결과수령에 달하면 개장성으로 된다. 가지의 자람성이 좋아 가지는 큰 편이며 꽃눈의 발생은 중간 정도이지만, 나무가 젊을 때에는 꽃덩이가지의 발생이 적고 결실되는 것도 늦다.

과실 모양은 짧은 심장형이며, 과피는 황색 바탕색에 담홍색으로 착색되지만 전면착색은 어렵다. 과육은 황백색이며, 육질은 상당히 단단하고 핵은 나폴레옹과 같이 반점핵성으로 당도는 14~16° Bx이며, 산도는 0.5~0.6%로 신맛은 적은 편이다. 숙기는 좌등금과 나폴레옹의 중간 시기인 6월 중·하순이며 고사, 나폴레옹 품종 등이 수분수로 이용 가능하다.



자브레



황옥



좌등금



고사



향아금

(3) 만생종

○ 네로 1(Nero 1)

숙기는 6월 하순으로 나폴레옹보다 2~3일 정도 빠르다. 과실의 무게는 9g 정도로 대과성이며, 당도는 20° Bx까지 올라 갈 정도로 높고, 신맛은 적어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 과피색은 암적색이고, 과육은 적색으로 착색되며, 열매터짐 현상은 매우 적은 편이다. 수분수로는 고사, 자브레 품종이 적합하다.

○ 반콤팩트(Van Compact)

숙기는 6월 하순으로 나폴레옹보다는 2일 정도 빠르다. 과실의 무게는 8~9g이며, 당도는 19° Bx 정도로 높고, 신맛은 적거나 다소 있어 품질이 매우 좋다. 과피는 암자색이고 적합한 수분수 품종은 고사, 좌등금이다.

○ 나폴레옹(Napoleon, Napoleon Bigarreau, Royal Ann)

육성 내력은 불분명하지만 18세기 초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이미 재배되고 있었던 오래된 품종이다.

나무의 자람세는 직립성으로 생육은 매우 왕성하나 결과기에 도달하면 약간 개장성이 되며, 장과지와 단과지 발생이 잘 된다. 잎은 약간 크고 장타원형(長橢圓形)이다.

개화기는 4월 중·하순경이며, 수분수로서는 개화기가 빠르고 친화성인 일출, 자브레, 고사 등이 좋다. 품질은 우수하고 결실연령은 늦으나 수령이 10년 이상으로 되면 착과량이 급증하고 성과기에 접어들면 품산성이 된다. 숙기는 6월 하순~7월 상순경이다. 과중은 7~8g 내외의 대과이고, 과피색은 황색 바탕에 선홍색으로 착색되고 완숙 시에는 전면이 황적색으로 되며, 과피는 얇고 딱딱하다. 과육은 유백색으로 과육 부분이 많고, 육질이 치밀하며 과즙이 많아 생식 및 가공용으로 적합하다. 또한 육질이 단단하여 강우에 의한 열과 피해를 받기 쉬우나 수송성은 좋고, 단맛은 약간 적으나 신맛도 적어 맛이 좋으며, 당도는 16° Bx 정도이다.

○ 빙(Bing)

1875년 미국 오리건 주의 르웰링(Lewelling)씨가 리퍼블리컨(Republican)의 종자로부터 선발한 품종이며, 그 이름은 중국인 정원사의 이름을 따서 작명된 품종이다.

나무의 세력은 강하고, 자람세가 유목일 때는 직립성이나 성과기가 되면 약간 개장성으로 된다. 결실연령이 빠르고 개화기도 빨라 수분수로 적당하나 나폴레옹과는 불화합성을 나타내고 과실 무게는 7~8g 정도로 대과이며 나폴레옹보다 약간 크다.

과피는 미숙과에서 짙은 적색을 나타내며 완숙되면 암적색이 된다. 과육은 진한 적색으로 육질은 단단하며, 당도는 16° Bx 정도로 높은 편이고, 신맛은 약간 있으나 품질은 우수하다.

육질은 비교적 단단하여 수송 및 저장성이 강하고 열매터짐 피해가 적

다. 숙기는 6월 하순~7월 상순경으로 나폴레옹 품종과 같으나 수확기간이 더 길며 생식용 품종으로 적당하나, 가공용으로는 부적당하다. 이 품종은 완숙 전인 과실에서 착색이 잘 되므로 미숙과 상태에서 수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네로 1



반콤팩트



나폴레옹



빙

(4) 주요품종의 숙기

(2010-2011, 원예연 화성포장)

품종	숙기							
	1	5	10	15	20	25	30	
홍사야카	●●	●●	●●					
일출	●●	●●	●●					
정광금		●●	●●	●●				
제왕		●●	●●	●●				
동광금		●●	●●	●●				
스즈모라이웨이게데		●●	●●	●●				
카스탄카			●●	●●	●●			
도너센스거베노펠			●●	●●	●●			
머튼 페브리트			●●	●●	●●			
고사			●●	●●	●●			
항하금			●●	●●	●●			
복광			●●	●●	●●			
석홍금			●●	●●	●●			
최상금				●●	●●	●●		
좌등금				●●	●●	●●		
산형미인				●●	●●	●●		
빅토리아				●●	●●	●●		
스타크하디 자이언트				●●	●●	●●		
나폴레옹				●●	●●	●●		
홍테마리					●●	●●	●●	
홍수봉					●●	●●	●●	
황등금					●●	●●	●●	
남양					●●	●●	●●	
램버트					●●	●●	●●	
라핀					●●	●●	●●	
월산금					●●	●●	●●	
빙					●●	●●	●●	

(5)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양앵두 시험성적

- 시험포장 조성 : 1999년(시설 80평, 노지 150평)
- 시험연구기간 : 2004~2006년(3개년)
- 시험품종 : 향하금, 석홍금, 나폴레옹, 고사, 좌등금
 - '04년 대과종 암적색 계통 Bing),
 - '05년 대과종 월산금, 동향금 도입
- 주요성과 : 시설재배, 노지재배 기술 국내 최초 확립
 시설재배 적품종 “좌등금” 적정수분수 “향하금” 선발

『 시험결과 요약』

- 무가온재배 작형 품종별 생육특성

품 종 별	밭아기	만개기	성숙기
향 하 금	3. 7	4. 5	5. 18
좌 등 금	3. 10	4. 6	5. 19
석 홍 금	3. 10	4. 6	5. 27
고 사	3. 11	4. 8	6. 3

※ 노지재배시 무가온 보다 10일정도 생육이 늦고 보조가온 (2월 중순부터 최저 7℃ 유지) 재배시에는 10일정도 빠름

- 품종별 과실특성('05 제주농기원)

품종별	과 중 (g)	당 도 (° Bx)	착색도 (a)	경 도 (g/5mm ϕ)	과육율 (%)	과피색
향하금	5.1	17.4	33.4	225	88.1	홍 색
좌등금	5.7	22.2	33.1	268	91.9	선홍색
석홍금	5.9	22.8	28.3	242	94.2	주황색
고 사	5.2	22.7	21.8	234	91.2	적황색

○ 수분수 품종별 착과율 및 정상과율 비교('05 제주농기원)

품 종 별	꽃가루를 주는 품종(수분수)			
	좌등금	향하금	석홍금	고사
좌 등 금	-	51.3(60.5)	1.5(53.1)	0 (42.0)
향 하 금	52.2(60.2)	-	65.9(72.9)	65.8(71.2)
석 홍 금	3.4(49.1)	48.2(55.4)	-	0 (60.0)
고 사	0 (45.3)	32.6(43.2)	2.7(57.5)	-

※ ()는 착과율. 비정상과는 만개후 20일까지는 정상적으로 비대하나 이후 중지되며 성숙기 이전에 낙과됨

		
비정상과	정상과(유과기)	정상과(성숙기)

『 핵심실천기술』

○ 시설재배』

- 주품종에 관계없이 수분수로 “향하금” 을 20% 수준 혼식해야 함
- 개화기 수정 적온 15℃ 유지(25℃ 이상시 수정을 급격히 저하)
- 개화기 온도상승을 막기 위하여 환기를 철저히 하고 필요시 차광 실시
- 수정율을 높이기 위하여 인공수분 실시(수정별 투입 등)

○ 노지재배

- 생육특성상 천근성 뿌리분포로 태풍 등 강풍피해대책 강구
- 과일 조수피해가 커서 반드시 방조망 설치 필요
- 과일 성숙기 강우시 열과발생이 심함(50%이상)으로 토양피복재배 및 수확기 기상에 유의

4. 재식요령

가. 재식시기(裁植時期)

묘목을 심는 시기는 생육이 거의 정지된 낙엽 후 11월 중순부터 12월 상순까지의 가을심기와 발아되기 전의 3월 중순부터 4월 상순까지의 봄철심기가 있다. 추운지방이 아니라면 낙엽직후인 가을에 심는 것이 묘목의 발육면에서 좋다. 가을에 심으면 다음해 봄에 묘목의 뿌리가 흙에 자리 잡아 새 뿌리가 내리며 발아도 빨라 생육이 좋고 우량묘를 구입하기도 쉽다.

그러나 가을에 너무 늦게 묘목을 구입 운반하여 재식하면 뿌리가 동해의 피해를 받기 쉬우므로 조기에 묘목공급이 어려울 때는 봄에 심는 것이 좋다. 봄에 심을 경우에도 너무 늦게 심으면 발아가 늦고 생육이 떨어지므로 되도록 심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좋다.

나. 재식요령과 재식거리

(1) 재식요령

재식시 고려할 사항은 감과양앵두는 대부분 자가불친화성일 뿐만 아니라 다른 품종 간에도 교배불친화성 품종이 많으므로 교배조합군을 참고하여 주품종보다 개화기가 1~2일 바른 친화성 품종을 수분수로 20%~30% 정도 혼식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묘목은 뿌리가 건조하지 않도록 흐린날 바람이 불지 않을 때 골라 축축한 거적으로 싸서 심는 장소에 운반한다. 심을 때는 재식 구덩이에 흙을 조금 쌓아 올려서 뿌리가 자연스럽게 퍼지고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아래 뿌리부터 차례로 흙을 덮는다. 너무 깊이 심으면 새뿌리의 발생이 좋지 않으므로 접목 부분이 지표면에 나올 정도로 심는다.

묘목심기가 끝나면 물을 충분히 주고 지주를 세워서 2개소 정도 묶어서 지상부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고 흙속의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짚이나 풀을 덮어 준다.

정식 후 생육상태는 앞으로의 수세에 민감한 영향을 주므로 수관의 확대와 더불어 토양관리, 정지, 전정, 병해충 방제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심은 후 비가 내리지 않을때에는 관수를 해 주어야 한다.

특히, 심은 후 1~2년까지는 뿌리의 비대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여름철에 물을 덮어주거나 관수를 하여 신초의 생육을 도모해야 한다. 활착하여 신초가 생육하기 시작하면 장차 수형을 고려하여 적심과 유인을 실시한다.

유목의 잎은 생육상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응애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항상 주위하여 약제를 살포한다. 또한 유목기에는 성목기보다 늦게까지 생장을 계속하므로 양분 부족을 초래하지 않도록 비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재식거리

재식거리는 품종, 대목의 종류, 토양의 비옥도, 지형, 정지법, 재배 방법 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양앵두는 다른 핵과류보다 훨씬 크게 자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재식거리는 충분히 넓혀주어야 한다.

그러나 재식 당시부터 넓게 심으면 초기수량이 떨어지므로 표에서와 같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밀식하였다가 가지 끝이 옆나무와 겹칠 무렵부터 계획적으로 간벌하여 수량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재식거리를 넓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간작(間作)으로 다른 작물의 수입이 예상될 경우에는 처음부터 재식거리를 넓게 잡아도 무방하다.

< 토양별 양앵두의 재식거리(10a당) >

구 분	비 옥 지	보 통 지	척 박 지
재식당시	5.5m×5.5m(33주)	4.5m×9m(24주)	4.5m×7m(30주)
	5.5m×9m(20주)		3.5m×7m(40주)
간 벌 후	11m×11m(8주)	9m×9m(12주)	9m×9m(12주)
	11m×9m(10주)		7m×7m(20주)

5. 정지 및 전정

가. 결과습성(結果習性)

양앵두나무는 사과, 배와 달리 정아는 항상 잎눈으로 액화아에 결실된다. 그 액화아를 착생시키는 결과지에는 발육지의 기부에 액아가 꽃눈으로 분화되는 경우와 단과지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이 단과지의 정액

아는 모두 꽃눈이 된다. 즉, 양앵두의 꽃눈은 순정꽃눈이고 잎눈이 없고 꽃눈만을 착생시켜 1개의 꽃눈에 많은 것은 6개의 꽃도 있으나 보통 2~3개의 꽃을 갖고 있다.

개화 결실한 곳은 맹아부가 되어 눈이 착생되지 않는다. 끝의 액화가 조금 뻗어서 짧은 가지가 되고 선단에 있는 몇 개의 눈이 발육지가 된다. 짧은 가지의 정아는 잎눈이 되지만 액아는 대부분 꽃눈으로 분화한다. 이 결과지는 3~4년동안 계속 꽃눈을 착생시키나 밑으로 뻗은 세력이 약한 가지와 일조 조건이 나쁜 곳의 가지는 2~3년 안에 고사하는 것이 많다. 고사, 좌등금, 나폴레옹 품종 등은 단과지 착생이 어렵기 때문에 작은 가지 발생이 적고 주로 장마철에 결과하므로 수량도 적다.

이와 같은 품종에 대해서는 절단 전정을 하여 작은 가지 발생을 많게 하여 장과지의 결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절단전정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장과지에 착생된 꽃눈과 잎눈을 잘 보고 꽃눈 앞에 적어도 3개 정도의 잎눈을 붙여 선단 1/3정도를 절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잎눈 수가 적으면 즉 절단 정도가 강하면 가지 생장이 강해지고 꽃눈 형성도 적어 수량도 적어진다.

나. 정지(整枝), 전정법(剪定法)

(1) 변칙주간형(變則主幹形) 정지법(整枝法)

양앵두는 나무의 특성이 원래 교목성이지만 수령이 경과함에 따라 주간하부의 세력이 강해지기 쉽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주간과 같이 일어서는 가지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처음부터 변칙주간형 또는 개심자연형이 되도록 정지, 전정하는 한편 생력재배를 할 수 있는 수형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지는 나무의 골격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재식한 묘목의 지상 60~70 cm 부위에서 절단하면 선단부위에서 5~6개의 가지가 인접해서 발생하지만 그 아래쪽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3~4개의 가지를 간격을 넓게 발생시킨다. 그 가운데 정아에서 발생한 가지를 주간으로 하고 기타 다른 가지는 주지후보지로서 45° 정도 되게 유인한다. 당년 여름에는 주간과 각 주지후보지에서 3~4개의 가지가 발생한다.

2년째의 겨울 전정에서는 주간 연장지를 전년과 같이 60~70cm 정도의 길이로 남기고 절단하며 주지후보지도 60cm 정도로 남겨 절단한다. 주지 후보지 중에서는 가지에 따라서 신초가 2~4개 정도 발생되는데 이들 가지가 거의 인접해서 발생하기 쉬우므로 연장지 옆이나 다소 아래쪽에서 발생한 측지 1~2개만 남기고 다른 것은 절단한다.

3년째의 겨울전정은 주지 중에서 너무 일어난 것과 간격이 가까운 것 1~2개를 솎아내는 정도로 한다. 남겨둔 주지후보지에 대해서는 겨울 전정시 차지 등이 되지않도록 서로 어긋나게 가지를 배치하도록 한다.

5년째 이후는 주지, 부주지의 바로 윗가지와 기부에 가까운 부분에서 발생하는 강한 가지는 통광, 통풍을 방해하므로 너무 크지 않을 때 절단한다. 그리고 주간연장지를 매년 60cm 정도로 절단해 가면 7~8년째에는 수고도 4~5m가 된다.

그 후는 주간연장지를 매년 짧게 잘라서 주지의 생장을 도모한다. 그리고 최상부의 주지분지부 바로 위 주간연장지를 제거하여 변칙주간형으로 만든다. 이와같이 수형이 완성되고 난 이후는 이 수형을 유지하지만 수관이 복잡해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주지를 솎아내어 5~6개로 한다. 이 시기는 재식후 8년부터 12~13년경이 된다.

(2) 개심자연형(開心自然形) 정지법(整枝法)

양앵두는 가지의 생장이 왕성하고 직립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개심자연형 수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간을 세워 주지를 개장시킨 다음 주지가 결정되고 나서 주간 연장지를 절단하도록 해야 한다. 주간 연장지를 제거하는 시기는 재식후 4~5년째이다.

이때의 주지수는 5~6개이지만 서서히 아래가지와 간격이 좁은 가지를 솎아내어 최후에는 3개를 남긴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정지할 때 주간을 절단할 시기가 늦어지면 큰 절단면이 생겨 유합이 불량하여 수세를 크게 약화시키므로 주간연장지를 제거하는 시기가 늦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6. 결실 및 착과

가. 결실을 좌우하는 조건

(1) 친화성(親和性)

양앵두 나무는 다른 과수에 비해 자가불친화성이 대단히 강하여 반드시 다른 품종을 수분수로 함께 심지 않으면 안된다. 품종 간에는 결실이 되지 않는 교배불친화성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친화성이 있는 품종을 선택해서 심어야 한다.

현재까지 7군의 상호교배불친화군이 확인되어 있고 동일군내의 품종에서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이 되지 않으므로 결실이 잘 되게 하려면 이 교배불친화성군을 참고하여 친화성이 있는 다른 군에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수분수(授粉樹)의 혼식비율

양앵두 나무를 경제적으로 재배하려면 결실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자가불결실성과 교배불친화성이 강한 양앵두는 수분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수분수 품종의 재식비율은 일반적으로 20%정도로 되어 있지만 품종 구성을 감안하여 좀 더(30%) 심는 것이 안전하다.

수확기 노동력 활용을 고려하여 3품종을 주 품종으로 재식하였을 경우에는 수분수의 비율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것은 품종간에 모두 교배친화성이 있는 경우이다. 위와같이 재식된 조합은 수확시기가 품종간에 각기 달라야 노동력 분산에 유리하다.

그리고 수분수로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은 각 품종의 개화기이므로 수분수는 주품종에 비하여 개화기가 1~2일 정도 빠르고 경제성이 높은 품종이 가장 이상적이다.

(3) 기상조건(氣象條件)

○ 동해(凍害) 및 늦서리 피해

양앵두는 화기 또는 꽃눈이 개화기에 저온 피해를 받아 결실이 불량해지기도 한다. 화분은 개화기에 -6°C 의 저온에 4시간 정도 있으면 장해가

발생되지만 살아 있는 화분이 많으므로 수분에 영향은 적고 개화기에 -6℃ 까지 기온이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다. 또한 화분은 저온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다. 그러나 암술은 저온에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동해의 피해를 받는 것은 암술이다.

늦게 피는 꽃은 화경이 짧고 결실이 불량하다. 늦서리의 피해는 높이 2m 내외의 나무가 피해를 가장 받기 쉬우며 꽃봉오리와 유과기까지 그 위험성이 있다.

○ 바람

월동기의 바람은 저온의 피해를 더욱 심하게 하여 꽃눈의 피해를 많게 하고 개화기 중의 바람은 결실을 나쁘게 한다. 바람에 의해서 결실이 나빠지는 것은 방화곤충의 활동을 둔화시키기 때문이지만 또 한가지 원인은 주두가 건조해져 수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 강우(降雨)

개화 기간 중의 강우는 방화곤충의 활동을 방해하여 수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결실을 불량하게 하는 치명적인 기상재해이다.

(4) 결실량 확보(結實量 確保)

양앵두는 인공수분에 의한 결실량 확보는 불가능하다. 사과, 배의 경우는 과실 한 개의 가격이 비싸므로 인공수분을 해도 경제성이 있으나 양앵두는 나무가 높아 인공수분 작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실이 작아 경제성이 없다. 그러므로 방화곤충에 의해 결실량을 확보하는 방법이 외국에서는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용되는 방화곤충은 꽃등애와 꿀벌이며, 야생벌의 일종인 꽃등애는 몸길이가 1.0~1.5cm로 사람이나 가축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10a당 250마리 정도가 필요하다. 꽃등애의 방사 장소는 과수원 중앙이 바람직하고 활동범위는 40m 정도 되므로 80m 간격으로 꽃등애를 방사하면 이상적이다.

양앵두는 개화수가 많아 전체 개화수의 15~20% 정도 결실되면 적당한 결실량이 되므로 방화곤충에 의한 수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나 개화기 전후에 강한 바람이나 빈번한 강우, 저온 및 늦서리는 결실을 불량하게 하므로 방풍림 및 비가림 재배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5) 적과(摘果)작업

낙엽과수 대부분은 적뢰, 적화, 적과 등의 작업으로 상품성이 높은 과실을 생산하고 있지만 양앵두는 꽃눈 분화전에 과실이 수확되므로 적과를 하지 않아도 다른 과수보다 격년결실이 심하지 않다. 그러나 2~3년 결과되면 과실이 작아 상품성이 떨어지고 액어나 결과지가 충실해지지 않아 동해를 입고 고사하여 잎수가 적어지고 다시 가지가 고사하게 되어 수세를 매우 쇠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므로 방화곤충의 활동을 적당하게 방해할 수 있다면 적정착과가 가능하므로 방화곤충 기피제를 살포하여 결실을 조절하면 도움이 된다.

7. 토양관리 및 시비

가. 토양관리(土壤管理)

(1) 토양개량(土壤改良)

양앵두 재배시 이상적인 토양조건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고 지하수위가 낮은 토양이다. 그러므로 습지의 토양에서는 나무의 생육이 극히 불량하다. 반면에 지하수위가 낮고 하층토가 자갈 등으로 보수력이 떨어지는 토양조건에서는 건조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며 과실비대가 불량하고 품질이 저하된다. 따라서 재식지의 토양상태를 감안하여 토양을 개량하여야 하는데 배수성이 불량한 점질토는 심경에 의한 토양개량이 가장 효과적이다.

(2) 표토관리(表土管理)

양앵두는 7월 상순에 수확이 끝나고 여름에는 다음해의 과실 생산을 위한 꽃눈분화기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시기는 기후가 고온건조하여 토양이 건조하기 쉽다. 특히 양앵두는 천근성이기 때문에 토양이 건조하면 피해를 받기 쉬우므로 양앵두 과수원의 표토관리는 토양수분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현재 표토 관리법은 청경법, 초생법, 피복법의 3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토양 건조 방지를 위해서는 피복법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피복자재의 구득이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 초생법에서는 양·수분의 경합이 단점이며 특히 여름에 수분 경합이 문제가 되는데 그 대응책은 건조기간에 예초를 하여 풀에 의한 수분증산이 되지 않게 하고 초생법과 피복법을 병행한 부분 초생을 하여 뿌리 부근의 토양수분을 확보한다.

또한 피복법은 피복시 지온이 저하가 염려되므로 이른 봄부터 피복을 하면 발아가 늦고 초기 생육이 불량해지기 쉬우므로 될 수 있으면 지온이 높아지는 장마기경부터 피복을 하여 여름건조에 대비하고 건조가 심한 경우에는 관수가 필요하다. 청경법은 경사지의 토양유실이 많아 토양이 척박해지기 쉽다.

나. 시비(施肥)

(1) 시비시기(施肥時期)

양앵두는 초기생육이 빠르고 수확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극히 짧기 때문에 그해 과실 생산에 소요되는 양분은 봄에 흡수하는 양분과 전년도에 흡수한 저장양분에 크게 의존하므로 기비는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기비(밑거름)는 뿌리가 활동하고 있는 9월 하순부터 10월 상순에 질소질 비료 80%를 사용하고 인산 및 칼리질비료를 전량 사용하여 비료성분이 조기에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는 6~7월 장마기에 비료분의 유실이 많을 뿐 아니라 수확 후에 꽃눈 분화가 시작되는데 꽃눈분화 공급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며 과실 생산 후 기비까지 기간이 길어 수세가 쇠약해지기 쉬우므로 수세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질소질 비료 20%를 수확 후 추비(웃거름)로 사용하면 겨울철 한해도 적고 꽃눈분화도 촉진되어 이듬해 결실도 좋아진다.

(2) 시비량

현재 표준 시비량에 대한 시험 성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토양조건, 재배 및 품종 등에 따라 각기 다르므로 적정 시비량을 결정하기는 어려우

나 양앵두 나무가 1년간 생장한 잎, 가지, 신초, 과실의 생장량을 측정하여 각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비료성분으로부터 연간 흡수한 3요소의 흡수 비율은 질소 10에 대하여 인산 2, 칼리 7이었다.

< 양앵두 나무의 시비량 >

수령	질소	인산	칼리	비고
1년	35 g	20 g	30 g	1주당 시비 성분량
5년	200 g	100 g	160 g	
10년	600 g	300 g	500 g	
성목	15 kg	6 kg	12 kg	10a당 시비 성분량

8. 병해충방제

가. 세균성 수지병

(1) 특징과 증상

일반적으로 2년생 이상의 가지와 원줄기에 발생하며, 감염된 병반부가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고 피해부위의 나무껍질은 다소 어두운 색을 띠며 옆 같은 투명한 나무진이 분비된다. 껍질 아래의 안쪽이 불규칙한 원형에서 방추형으로 갈변되고 차츰 병반이 확장되어 간다. 어린나무에서 발생량이 많고 노목에서도 발생량이 적지 않다. 발병정도는 품종간 차이가 있는데, 고사 품종이 비교적 저항성을 나타내고 나폴레옹 품종이 감수성이며 좌등금은 중간정도의 감수성을 나타낸다.

(2) 전염경로

전정부위나 일반적인 상처, 말라죽은 눈을 통해 감염이 이루어진다. 인위적인 접종시 어린잎과 새 가지에 병원성을 나타내지만 일반 노지 포장에서의 발생기작은 명확하지 않다. 두께가 90cm 정도의 감수성 품종에 인위적으로 접종시 1년에 50~60cm 정도 병반이 확장된다.

(3) 방제법

정확한 발생기작이나 발생생태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지만, 웃자라거나 나무의 세력이 쇠약한 경우에 발병이 심하므로 강전정을 피하고 바뀌살가지를 만들지 않도록 한다. 재식 후 7~8년째까지는 질소비료를 너무 많이 주지 않도록 하고, 토양의 물빠짐이 좋도록 한다. 피해부위를 긁어내고 유합제를 발라주며, 긁어낸 부스러기는 모아서 태우고 사용한 도구도 사용할 때마다 소독한다. 특히 복숭아유리나방의 방제를 철저히 하고, 발아 전에는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한다.

나. 탄저병

(1) 특징과 증상

주로 과실에 발생되며 심할 경우 잎과 눈에도 나타나고, 성숙기 전후에 비가 많이 오는 해에 발생이 심하다. 과실에서는 검은 빛깔을 약간 띤 갈색 병반이 함몰되고 그 곳에 등황색 내지 선홍색의 끈적끈적한 포자덩어리가 형성된다. 어린잎에서는 검은 빛깔을 약간 띤 갈색의 둥근 반점이 발생되어 구멍이 뚫리기도 하며, 성숙된 잎에서는 6월 중순부터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흑갈색 병반이 발생하여 7월 하순 이후 병반이 확대, 증가하여 조기에 낙엽이 되기도 한다. 잎이 낙엽될 정도로 발생이 심한 과수원에서는 잎자루 아래 부분의 눈이 갈색으로 변하여 말라죽고 그 눈이 병원균의 월동처가 되어 이듬해에 전염원의 역할을 하게 된다.

(2) 전염경로

말라죽은 눈과 짧은 열매가지, 일찍 낙엽된 잎자루가 붙어 있었던 가지 등에 형성된 분생포자가 감염을 일으키는 매개체로서 작용한다. 병원균의 포자는 다른 병원균과 마찬가지로 비바람을 통해 개화기~7월까지 퍼져나가게 되며, 특히 개화기와 수확기인 6월에 많이 감염된다.

(3) 방제법

휴면기에는 각지벌레 방제와 겸하여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하고, 발아기~개화기에 걸쳐 말라죽은 꽃눈이 조밀하게 모여 있는 짧은 열매가지와

발아되지 않은 눈은 병 확산의 원인이 되므로 신속히 제거해준다. 양앵두에 등록된 약제는 아직까지 없으므로 생육기간 중에는 복숭아잿빛무늬병 방제에 준하여 약제를 살포하며, 수확 후에도 잎으로의 감염이 많으므로 정기적으로 약제살포를 하여 다음해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

다. 잿빛무늬병(회성병)

(1) 특징과 증상

꽃과 과실에 주로 발생하지만 가끔 잎과 가지에 발생하기도 한다. 꽃에 발병하면 꽃 전체가 연한 갈색으로 말라죽어 잿빛 갈색의 분생포자를 형성하여 오랜 기간 나무에 남아 2차적인 감염을 일으킨다. 어린과실에 감염되면 작은 흑갈색 반점을 생성하여 검은 빛깔을 약간 띤 갈색으로 부패하고 반점이 부스럼 딱지처럼 된다. 성숙과에도 처음에는 작은 반점으로 시작해서 곧 과실 전체로 확대되어 과실이 물러져 썩고, 과실 표면에 분말의 분생포자를 뽁뽁하게 생성한다.

(2) 전염경로

지표면에서 겨울을 난 월동 균핵에서 발생한 자낭포자나 지난해에 피해를 받은 과실이 나무에 미라처럼 붙어있는 상태로 월동 후 형성된 분생포자가 암술머리(주두)를 통해 발아하여 침입하며, 과실에서는 병원균 포자가 과피에 달라붙어 발아하여 침입한다. 다른 병해와 마찬가지로 개화기에 비가 잦을 때 꽃으로의 감염이 증가하며, 꽃이 진 후 비가 그치면 분생포자가 많이 형성되어 주변으로 날아가 감염이 증대되어 결국 과실로의 감염도 증가한다. 특히 수확기의 계속된 비는 피해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3) 방제법

휴면기에는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하여 방제하고, 병에 걸린 과실이나 말라죽은 가지를 발견 즉시 제거하고 웃자람가지의 발생을 억제하여 나무내부로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여 병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약제방제 적기는 휴면기, 개화직전, 만개 3일 후, 유과기,

성숙기이며 아직까지 양앵두에 등록된 약제는 없으므로 복숭아 잣빛무늬 병에 준하여 약제를 살포한다. 비가 오기 직전에 살포하면 방제효과가 높으며, 동일한 약제를 계속 사용하면 내성균의 출현으로 약효가 떨어지므로 살균 기작이 다른 약제로 바뀌가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복숭아유리나방

(1) 특징과 증상

매실, 살구, 자두, 복숭아, 뽕나무 등에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애벌레는 나무껍질 속을 가해하므로 나무 세력이 약해지고 심하면 말라죽어 피해가 크다. 애벌레는 머리가 황갈색이고 몸은 담황색이며, 각 마디는 노란색이고, 몸길이는 23mm 정도이다. 번데기는 황갈색으로 배 끝에 돌기가 있으며 길이는 16mm 정도이고 나무껍질 밑의 고치 속에 들어 있다. 1년에 1회 발생하며 5월~9월까지 성충이 기주나무의 원줄기 아래쪽에 알을 낳는다.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나무껍질 밑에서 성장하여 월동하며, 이듬해 봄부터 연중 가해한다. 번데기의 껍질은 성충이 탈출한 구멍 밖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성충의 모양은 벌과 비슷하다.

(2) 방제법

벌레 배설물 또는 진이 발견되는 곳이 애벌레의 잠입 부위이므로 칼이나 철사를 이용하여 비가 내린 뒤 나무껍질이 부드러울 때 직접 잡아 없애 준다. 월동 후에는 애벌레의 갹아먹는 활동이 왕성하므로 늦어도 월동직 전까지 잡아야 한다. 원줄기의 피해가 심하기 전에 성충이 산란하지 못하도록 접촉성 살충제를 충분히 살포하고, 발생이 심한 곳에서는 살충제를 섞은 백도제를 발라준다. 또한 애벌레 잠입시기인 6월 상순~8월 상순에 유기인계 살충제를 줄기와 가지 부위에 충분히 묻도록 살포하고, 기타 피해 부위는 전정할 때 잘라 성충이 탈출하기 전에 불태운다. 양앵두에는 등록된 약제가 없으므로 복숭아유리나방 방제에 준한다.

9. 수확후 관리

가. 수확시기 판정

수확 시기는 만개일로부터의 일수, 과피의 착색, 당도 및 과실의 용도 등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면 일출 등의 조생종은 만개일로부터 30~35일 후, 자브레, 고사, 좌등금 등의 중생종은 만개일로부터 40~45일 후 빙, 나폴레옹 등의 만생종은 만개일로부터 50~55일 후에 수확한다.

과실의 용도에 따른 수확시기 판정은 생식용의 경우 품종 고유의 특성을 나타낼 때 예를 들면 고사에서는 당도 12° bx, 좌등금 14~15° bx, 나폴레옹 13~14° bx, 북광 13° bx 정도가 되면 2~3회에 걸쳐 수확한다.

햇빛을 잘 받은 과일은 수관내부에 있는 과일보다 숙기가 2~3일정도 빠르기 때문이다. 가공용 과실의 경우에는 가공시 탈색되어 식용 색소를 첨가하여 다시 착색시키므로 그다지 착색이 되지 않아도 되고 과육도 어느 정도 딱딱한 것도 좋으므로 생식용보다 약간 빨리 수확한다.

나. 수확시 유의점

- 양앵두는 수확기간이 짧고, 품종, 수령, 결실량에 따라 과실품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용도,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수확시기를 결정한다.
- 수확시에는 잎과 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고 단과지를 꺾지 않도록 주의하며 과경을 쥐고 수확한다.
- 수확은 될 수 있는 데로 이른 아침부터 10시경까지 선선할 때 수확하면 선도유지와 수송성이 좋다. 하루 중 고온시에 수확할 때는 수확후 곧 서늘한 음지에 두어 과실의 온도를 내리고 선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 수확한 과실은 손상되기 쉬우므로 주의해서 선과 포장한다.
- 수확 바구니는 과실의 손상을 적게하기 위해서 안쪽에 천이나 스폰지 등을 붙여 과실을 보호한다. 또 선과할 때의 용기는 얇은 상자를 사용해 과실의 손상을 막는다.
- 어쩔 수 없이 비오는 날 수확할 때는 선풍기 등을 이용해서 빗물을 완전히 건조시킨 후 출하한다.

다. 선도유지

양앵두는 고온기에 수확하게 되므로 수확후의 호흡작용이 왕성하여 선도가 저하되기 쉽다. 그러므로 호흡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수확 후 신속하게 과실의 온도를 내리고 특히 보관, 수송 중에 과실의 온도를 낮게 하는 방법이 대단히 중요하다.

라. 선과, 포장, 출하

예냉된 과실 중 생식용은 착색불량과, 부정형과, 상해과, 열과 등 수송 중에 부패될 우려가 있는 과실을 가려내고 가공용은 부정형과 및 생리장해과를 제외하고 포장 및 출하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주요산지에서 공동으로 선과 및 출하를 품위 등급 기준에 맞추어 출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량이 적어 품위 등급 기준에 맞추어 출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량이 적어 품위 등급의 규정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농가별로 4kg 골판지 박스에 포장하여 출하하고 있으나 앞으로 생산량이 증가될 경우 등급의 설정과 포장방법도 개선하여 출하하면 가격을 보다 높게 받을 것이다.